주주총회소집공고

2019년 3 월 1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STX

대 표 이 사 : 박상준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전 화) 02-316-9812

(홈페이지)http://www.st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상무 (성 명) 김영욱

(전 화) 02-316-9812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3기 정기주주총회)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 제43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일 시 : 2019년 3월 28일 (목요일) 12시 00분

2.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 Ocean Tower 4층 대강당

3. 회의 목적사항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부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43기(2018.1.1 ~ 2018.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홈페이지, 본점 및 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전자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대현 (출석률: 100%)	김정민 (출석률: 80%)
			찬 반 여 부	
1차	2018.01.23	1. 이사의 자기거래 한도 승인의 件	찬성	취임 전
2차	2018.02.23	1. 암바토비 대부투자 출자전환 한도 승인의 件	찬성	취임 전
3차	2018.03.15	1. 제4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件	찬성	취임 전
		2. 제42기 재무제표 승인의 件	찬성	취임 전
		3. 제42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件	찬성	취임 전
		4. 이사 선임의 件	찬성	취임 전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件	찬성	취임 전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件	찬성	취임 전
4차	2018.03.30	1. 이사회 의장 선임의 件	찬성	취임 전
		2. 대표이사 선임의 件	찬성	취임 전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件	찬성	취임 전
		4.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件	찬성	취임 전
5차	2018.05.14	1. 2018년 1분기 [제43기] 결산 보고	-	취임 전
		2.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	취임 전
6차	2018.05.18	1. STX마린서비스 채무보증 제공의 件	찬성	취임 전
7차	2018.06.14	1. 동티모르 법인 설립의 件	찬성	취임 전
8차	2018.07.03	1.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件	찬성	취임 전
9차	2018.07.27	1. 이사 선임의 件	찬성	취임 전
10차	2018.08.13	1. 우리은행 차입과목 한도 조정의 件	찬성	취임 전
11차	2018.08.22	1. 이사회 의장 선임의 件	퇴임	불참
		2. 대표이사 선임의 件	퇴임	불참
		3.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의 件	퇴임	불참
12차	2018.08.31	1. 여신한도 만기연장 및 파생상품 거래한도 조정의 件	퇴임	찬성
		2.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 채무인수의 件	퇴임	찬성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件	퇴임	찬성
		4.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件	퇴임	찬성
13차	2018.11.02	1. 러시아 LPG 탱크터미널 투자 승인의 件	퇴임	찬성
		2. 해외법인(홍콩) 설립의 件	퇴임	찬성
14차	2018.11.14	1. 신설법인 설립 및 투자의 件	퇴임	찬성
15차	2018.12.21	1. SMC 차입금 만기 연장의 件	퇴임	찬성
		2. 투자지분(STX중공업] 매각의 件	퇴임	찬성
		3. 신설법인 설립 및 투자의 件	퇴임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투명경영위원회	김대현	2018.03.30	1.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件	가결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김대현	2018.03.15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件	가결
	김대현	2018.03.30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件	가결
	김대현	2018.07.27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件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1,000	39	39	-

*주총승인금액은 전체 등기이사에 대한 연간 한도 금액임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 기타비상무사이사 2인)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차입금 상환	STX마린서비스 (종속회사)	2018.08	80	1.79%
매출	STX JAPAN CORPORATION (종속회사)	2018.04	45	1.00%
		2018.09	55	1.22%
		2018.10	51	1.14%
		2018.11	51	1.15%
		2018.12	64	1.43%

(*)한도성여신은 제외하였습니다.

※ 기준 : 당사 2018년말 자산총액 1% (4,468백만원) 이상인 거래

※ 상기 비율은 2018년도 자산(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대비 비율임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STX JAPAN CORPORATION (종속회사)	매출 등	2018.01.01~2018.12.31	4,281	95.55%
STX International Trading (Singapore) Pte., Ltd. (종속회사)	매출 등	2018.01.01~2018.12.31	161	3.60%
	매입 등	2018.01.01~2018.12.31	2,378	53.07%

(*)한도성여신은 제외하였습니다.

※ 기준 : 당사 2018년말 자산총액 5% (22,338백만원) 이상인 거래

※ 상기 비율은 2018년도 자산(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대비 비율임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지배기업 및 무역부문 (주식회사 STX, STX Singapore 등)

(1) 산업의 특성

주식회사 STX 및 STX Singapore 등 해외 Trading 법인은 무역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유연탄, 유류, 철강, 비철금속, 플랜트 기자재 등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무역사업은 지역적 수요/공급의 불균형, 가격차이 등을 바탕으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 주는 전통적 중개 알선 및 판매 영업으로 글로벌 경기변동 및 원자재 가격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제조업체의 자체 해외 지점망 보유 등에 따른 직수출 확대로 수출입 대행 등 상사의 전통적인 역할은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상사는 그 동안 수행했던 단순 수출 대행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능의 제공으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상사의 트레이딩 사업모델은 사업의 특성상 국내 경기는 물론 선진국 및 신흥국의 글로벌 경기 변동 등 모든 정치, 경제적 변수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 엔저로 대변되는 일본의 통화 확장, 그리고 유로존 디플레 위험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들은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등락 등 주요 경제지표와 대외 교역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며 이는 회사의 비즈니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4)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1) 에너지 사업

석탄 사업의 성공요인은 장기적 신뢰관계에 기반한 공급선 및 구매선 네트워킹과 물류 및 품질 관리의 최적화, 그리고 가격변동위험, 거래처 신뢰성 등 각종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당사는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주요 거래선과의 긴밀한 관계 및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역량을 기반으로 영업확대 전략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석유 사업은 시황변동에 따른 제품/거래방식 포트폴리오 운영 노하우와 리스크 관리 역량,글로벌 메이저와의 거래관계 구축을 통한 시장 신뢰도가 중요한 성공 요인입니다. 당사는 석유제품 트레이더로서 다양한 제품군, 다수의 글로벌 사업 추진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원자재 수출입
철강 사업의 핵심경쟁력은 주요 철강사들과 비즈니스 관계 구축을 통한 차별화된 조달 능력 확보와 고정 거래선 보유, 그리고 신규 수요 창출 역량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비철사업은 경쟁력있는 공급자 보유 여부, 장기계약 중심의 안정수요 확보,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역량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당사는 이 분야에서 다양한 내수판매 노하우와 해외 판매 네트워크 및 파생상품 운영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기계・물자 사업
기계・물자 사업의 핵심성공요인은 시장 네트워크 확보 역량과 아이템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비즈니스 조정 능력입니다. 당사는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특수 시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철도차량 부품, 지하수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특화된 아이템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차량용 배터리, 타이어를 포함한 차량용 부품, 건자재, 식품 수출입 사업에서 꾸준히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4) 해운・물류 서비스 사업
해운・물류 서비스 사업의 경쟁력은 선박도입, 관리, 운영, 매각에 필요한 전문인력, 기술,노하우와 보유 여부와 시황정보 및 사업기회 발굴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보유 여부에서 나옵니다. 당사는 자사선 및 용대선 선박 영업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5) 신규사업의 내용과 전망

주식회사 STX 및 STX Singapore 등 해외 Trading 법인은 철강/금속 등 Bulk Biz 거래 품목을 확대, 기존 원자재/원료 위주 거래에서 제품군 거래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계플랜트/해운물류사업 등 고수익사업부문을 강화할 것이며, 아프리카/중동/동남아 등의 해외거점을 적극 활용, 신흥시장 사업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비재/경공업등 기존추진사업 외 신규사업 실행과 비자원분야 Trading Item 확보를 통한 포트폴리오 다양성 확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 해운 부문 (STX마린서비스)

(1) 산업의 특성

STX마린서비스는 선박 및 해양 연계 사업에 대한 물적, 인적, 기술적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 관련 서비스 산업, 선박용 엔진 산업 및 육상 발전 플랜트 서비스 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는 선박관리, 마린엔지니어링, 기자재사업, 선박의 중개・임대・S&P,선박보험, 선박 기자재 상품/부품 및 유지・보수 서비스, 육상 발전플랜트 운영서비스, 녹색환경사업 등의 다양한 연관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해양 산업은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 등 전통적인 선박관리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중개・용선・S&P, 기자재 판매, 연료절감 Solution 사업 등 연관된 산업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선박관리부문은 해운업의 원가경쟁력 제고 및 우수 선원 확보 등 선주들의 Needs에 맞추어 전문적 선원 교육 프로그램과 운항 원가 절감의 경험 및 노하우가 부각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기자재 판매 및 서비스부문은 선복량 증가로 인한 선용・기자재 구매 및 부품 A/S 수요 확대로 인해 시장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환경 규제 강화 및 에너지 절감 노력에 따라 선박 관련 에너지절감 Solution, 녹색환경사업, 특수선 설계 등 Solution 관련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발전플랜트 산업은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요구 전력량 상승으로 인하여 지속

적인 산업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환경규제로 인하여 디젤파워플랜트, 원자력플랜트 보다는 가스터빈플랜트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3) 산업의 경기변동의 특성

해양 관련 서비스 산업은 해운・조선의 지원산업으로서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해운・조선 시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세계경기 변동에 따른 해운 물동량 및 선박수요의 변화는 관리선박 척수 및 선박 관련 기자재 판매 및 A/S 수요의 증감을 초래하여 당사의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발전플랜트 산업은 세계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일부 산유국의 발전플랜트 산업은 유가변동에 의한 국가재정 수지에 크게 영향을 받아 당사의 영업실적 및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선박관리부문의 경우 기술력과 전문인력이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당사는 50여년 간 축적된 운항 및 안전관리 노하우와 우수한 전문인력을 보유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플랜트・서비스사업 부문은 기술력 및 영업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이며, 당사는 이라크 900MW DPP O&M, 필리핀 650MW TPP O&M 등의 실적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Global Network를 활용하여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 시장점유율

선박관리부문 및 플랜트 O&M 산업 분야는 공신력 있는 시장조사기관이 없어 정확한 시장점유율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3. 기타 부문 (STX리조트)

(1) 산업의 특성

리조트 산업은 건설업, 호텔산업, 스포츠산업, 여객운송업, 의류산업, 농수산물산업, 인테리어산업, 하이테크산업 등 타 산업에 많은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발생시키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리조트 개발은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높은 고정비 지출, 대규모 초기투자와 이에 따른 자본회수기간의 장기화, 계절적 특성에 의한 성수기, 비수기 간 수익격차 발생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리조트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가처분소득, 여가시간, 가치관, 자동차 보유대수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 소득수준과 여가시간의 정도가 가장 큰 변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기계화 등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자동차 보급의 확대 및 가족단위의 레저활동 등으로 레저패턴이 단순숙박, 관광형에서 체류, 휴양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제 정착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리조트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장 여건

관광레저산업과 관련된 각종 숙박시설과 레저시설 등은 전국적으로 퍼져 경쟁상태에 있습니다. 국내 리조트업계는 1980년대까지는 스키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이 리조트 업계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는 레저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레저패턴이 단순 숙박 관광형에서 체류 휴양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구비한 대형 리조트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들의 리조트사업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4) 회사의 경쟁력

STX리조트는 경북 문경에 약 200실의 숙박시설과 세미나실 및 대강의실 등의 연수시설을보유한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리조트 시설은 연수에 특화되어 있는 시설로서 기업 워크샵 및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기업 단체급식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어, B2B/B2C 영역을 아우르는 수익창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주식회사 STX는 에너지 사업, 원자재 수출입 사업, 기계・물자 사업, 해운・물류 사업의 4대 사업을 중심으로 한 전문 무역상사입니다. 그리고 K-IFRS 기준에 따라 연결

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해운・무역 사업 등이 있습니다. 한편 STX는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투자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14년 1월 17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절차가 개시되는 등 STX기업집단의 구조조정에 따라,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주식회사 STX 및 그 종속회사의 사업부문별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	대상 회사	주요 사업내용
지배기업	주식회사 STX	국내・외 계열사 투자, 종합상사업 등
해운・무역	STX마린서비스, STX International Trading(Singapore) Pte, Ltd. 외	선박관리 및 무역업 등
항공정비	STX에어로서비스	항공기 MRO 사업
기타	STX리조트	리조트 운영

주식회사 STX의 매출은 에너지 사업, 원자재 수출입 사업, 기계・물자 사업, 해운・물류 4대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은 유연탄, 석유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원자재 수출입 부문에서는 철강제품과 알루미늄, 아연, 니켈 등 비철금속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엔진 사업 분야에서는 플랜트 및 선박 엔진 및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한편, 차량, 건자재, 육류, 의료기기 공급 사업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영위하고있습니다. 해운・물류 부문은 자사선 운용 및 S&P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자율협약)의 종료와 최대주주변경

2018년 4월 12일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유한회사 에이에프씨코리아 간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매매계약이 이행 완료된 2018년 8월 21일, 유한회사 에이에프씨머큐리로의 최대주주 변경과 함께 채권단 공동관리절차(자율협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안정화 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수익성 강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상사분야 외의 신규사업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당사는 전문무역상사로서 특히, 조선업 및 해운업 그리고 에너지산업의 시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시황은 해운시황 변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세계 경제성장률, 유

가 등 외생변수에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주식회사 STX 및 STX Asia 등 해외 Trading 법인은 철강/금속등 Bulk Biz 거래품목을 확대, 기존 원자재/원료 위주 거래에서 제품군 거래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기계플랜트/해운물류사업 등 고수익사업부문을 강화할 것이며, 아프리카/중동/동남아 등의 해외거점을 적극 활용, 신흥시장 사업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공정비사업, 바이오솔루션 사업 등 전통적인 상사분야 외의 신규사업으로의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해 사업간 시너지 및 수익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II.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현금흐름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①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43(당)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42(전)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STX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3(당) 기	제 42(전) 기
자 산		
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44,279	95,504
단기금융자산	17,432	38,093
파생상품자산	6,337	2,630
매출채권	128,870	105,729
재고자산	129,417	181,620
선급금	49,743	15,329
기타채권	30,816	10,073
단기비금융자산	15,967	718
유동자산 계	422,861	449,696
Ⅱ. 매각예정비유동자산		26,090
Ⅲ. 비유동자산		
장기금융자산	10,215	23,279
관계기업투자주식	1,089	
장기매출채권	5,732	6,485
기타채권	36,760	48,348
유형자산	74,249	70,760
투자부동산	147	133
무형자산	3,007	2,750

과 목	제 43(당) 기	제 42(전) 기
이연법인세자산	1	1
비유동자산 계	131,200	151,756
자 산 총 계	554,061	627,542
부 채		
Ⅰ. 유동부채		
매입채무	76,685	116,542
선수금		23,189
계약부채	32,369	-
단기차입금	305,981	253,322
유동성장기부채	2,954	75,881
단기금융부채	47,252	69,331
파생상품부채	838	15,317
단기비금융부채	366	399
유동부채 계	466,445	553,981
II.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22,595	19,343
장기금융부채	(1,542)	9,232
장기선수금	-	1,256
장기계약부채	371	-
장기비금융부채	-	301
퇴직급여부채	843	868
이연법인세부채	1,321	1
비유동부채 계	23,588	31,001
부 채 총 계	490,033	584,982
자 본		
Ⅰ. 지배기업주주지분		
자본금	49,318	47,834
자본잉여금	309,749	430,562
자기주식	(248)	(248)
기타자본	(303,102)	(312,102)
이익잉여금	8,111	(123,486)
지배기업주주지분 계	63,828	42,560

과 목	제 43(당) 기	제 42(전) 기
II. 비지배지분	200	-
자 본 총 계	64,028	42,56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554,061	627,542

②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3(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2(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STX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3(당) 기	제 42(전) 기
Ⅰ. 당기순손익		
영업수익	1,502,985	1,803,878
영업비용	(1,517,763)	(1,759,825)
- 매출원가	(1,483,048)	(1,718,572)
- 판매비와관리비	(34,715)	(41,253)
영업이익(손실)	(14,778)	44,053
기타수익	15,416	8,228
기타비용	(2,314)	(28,000)
금융수익	90,704	475,877
금융비용	(79,253)	(165,53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9,775	334,626
법인세수익(비용)	(668)	(240)
당기순이익(손실)	9,107	334,386
Ⅱ. 기타포괄손익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60)	175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2,920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34)	-
- 해외사업환산손익	(62)	784
- 재평가잉여금	3,528	-
기타포괄손익 계	3,272	3,879
Ⅲ. 총포괄손익	12,379	338,265
Ⅳ.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주주지분	9,107	334,386
비지배지분	-	-
계	9,107	334,386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주주지분	12,379	338,265
비지배주주지분	-	-
계	12,379	338,265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단위: 원)	471	20,985

③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43(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2(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STX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기타자본	결손금	지배기업 주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2017년 1월 1일(제 42(전) 기 기초)	118,472	11,147	(88)	(2,080)	(458,047)	(330,596)	-	(330,596)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	-	-	-	-	334,386	334,386	-	334,386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2,920	-	2,920	-	2,920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175	175	-	175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784	-	784	-	784
기타포괄손익 계	-	-	-	3,704	175	3,879	-	3,879
총포괄손익 계	-	-	-	3,704	334,561	338,265	-	338,265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 유상증자(출자전환)	360,007	(11,147)	-	(313,726)	-	35,134	-	35,134
- 주식병합 및 자기주식소각	(430,645)	430,562	79	-	-	(4)	-	(4)
- 자기주식의 취득	-	-	(239)	-	-	(239)	-	(239)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계	(70,638)	419,415	(160)	(313,726)	-	34,891	-	34,891
2017년 12월 31일(제 42(전) 기 기말)	47,834	430,562	(248)	(312,102)	(123,486)	42,560	-	42,560
K-IFRS 1109 최초적용에 따른 조정	-	-	-	(2,810)	2,274	(536)	-	(536)
K-IFRS 1115 최초적용에 따른 조정	-	-	-	-	(430)	(430)	-	(430)
2018년 1월 1일 (제 43(당) 기 기초)	47,834	430,562	(248)	(314,912)	(121,642)	41,594		41,594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9,107	9,107	-	9,107
기타포괄손익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160)	(160)	-	(160)
- 지분법자본변동	-	-	-	(34)	-	(34)	-	(34)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62)	-	(62)	-	(62)
- 재평가잉여금	-	-	-	3,528	-	3,528	-	3,528
기타포괄손익 계	-	-	-	3,432	(160)	3,272	-	3,272
총포괄손익 계	-	-	-	3,432	8,947	12,379	-	12,379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 유상증자(출자전환)	1,484	-	-	8,368	-	9,852	-	9,852
- 결손금 보전	-	(120,813)	-	-	120,813	-	-	-
- 기타	-	-	-	10	(7)	3	-	3
- 연결범위의 변동	-	-	-	-	-	-	200	200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계	1,484	(120,813)		8,378	120,806	9,855	200	10,055

과 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기타자본	결손금	지배기업 주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2018년 12월 31일 (제 43(당) 기 기말)	49,318	309,749	(248)	(303,102)	8,111	63,828	200	64,028

④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43(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2(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STX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3(당) 기	제 42(전) 기
Ⅰ. 영업활동현금흐름	(48,113)	100,295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48,007)	99,293
이자의 수취	385	924
배당금의 수취	2	2
법인세의 환급	(493)	76
Ⅱ. 투자활동현금흐름	24,797	47,311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49,876	61,296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8,847	29,286
기타채권의 감소	95,625	4,761
유형자산의 처분	31	255
무형자산의 처분	8	367
단기금융자산의 증가	(28,413)	(40,147)
장기금융자산의 증가	(1,169)	(2,012)
기타채권의 증가	(98,301)	(6,038)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1,133)	-
유형자산의 취득	(564)	(449)
무형자산의 취득	(10)	(8)
Ⅲ. 재무활동현금흐름	(28,779)	(96,231)
단기차입금의 순차입	58,758	(38,022)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78,191)	(38,965)
장기차입금의 상환	-	(458)
자기주식의 취득	-	(239)
금융보증계약부채의 상환	(6,009)	-
이자의 지급	(12,610)	(16,669)
연결자본거래	(1)	-
비지배지분의 증가	200	-
유상증자	10,000	-
주식발행비용	(143)	-
주식발행비용환입	8	-

과 목	제 43(당) 기	제 42(전) 기
기타	(199)	(1,878)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51,503)	51,375
Ⅴ.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95,504	47,692
Ⅵ.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78	(3,563)
Ⅶ.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44,279	95,504

⑤ 주석

제 43(당)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42(전)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STX와 그 종속기업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STX(이하 "지배기업")는 1976년 12월 24일에 설립되었으며, 종합상사업 및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1990년 9월 12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고, 2014년 1월 17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18년 8월 21일자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보유주식 공동매각 거래가 종결됨으로 인해 지배기업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자율협약)가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최대주주가 에이에프씨머큐리(유)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유안타증권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30일에 10,000백만원(593,472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백만원)

주주명	보통주		
	주식수	지분율	자본금
에이에프씨머큐리(유)	16,508,051	83.68%	41,270
기 타	3,218,851	16.32%	8,047
합 계	19,726,902	100%	49,317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그종속기

업(이하 "연결실체"),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투자, 해운・무역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19년 3월 12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9년 3월 28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금융상품)가 처음 적용되었으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하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2)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경영진의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

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금융리스에 관한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퇴직급여, 법인세,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에 관한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공정가치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

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금융상품, 유형자산, 투자부동산에 관한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실체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를 최초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제1119호)

①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수익을 언제, 얼마나 인식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체계입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8호(수익), 제1011호(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제 2115호(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를 대체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최초 적용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2018년 1월 1일)에 인식하도록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며, 최초적용일(2018년 1월 1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이 기준서를 소급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결실체는 전기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월 1일의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도입에 따른 세후 전환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1월 1일 적용효과
이익잉여금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운송용역	(430)
법인세 효과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1월 1일 적용효과
2018년 1월 1일 적용 효과	(430)

2018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실체의 요약 연결재무상태표와 동일자로 종료되는 요약 분기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적용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의 동일자로 종료되는 요약 분기연결현금흐름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기 중 요약 연결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구 분	공시금액	조정	제 1115호 반영전 금액
자산			
유동자산	422,861	(198)	422,663
비유동자산	131,200	-	131,200
자산총계	554,061	(198)	553,863
부채			
유동부채	466,445	(863)	465,582
비유동부채	23,588	-	23,588
부채총계	490,033	(863)	489,170
자본			
자본총계	64,028	665	64,693
부채와 자본 총계	554,061	(198)	553,863

(가) 무역거래시 운송용역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함에 따른 수익의 인식

이전 기준서에서는 재화에 대한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의 이전시 일시에 수익을 인식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에서는 운송용역을 구분하여 식별하고,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한 후, 용역의 진행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로 인해 미완료된 운송용역에 대해 기 지급한 운송비를 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미이행된 운송용역에 대해 고객에게 기 청구된 금액을 계약부채로 인식하였

습니다.

(나) 무역거래시 운송용역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함에 따른 비용의 인식
단일계약에 포함된 운송용역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함에 따라 수익의 인식시점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동 운송용역의 수행을 위해 지급한 운송비를 기존 기준서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인식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에서는 관련 직접비용을 매출원가로 분류하며, 비용인식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요약 연결현금흐름표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의 적용으로 영업현금흐름 구성항목 중 자산 및 부채의 증감내역상 계정과목의 변경이 발생하나, 영업활동으로 인한 총 현금흐름은 동일합니다.

한편, 당기초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적용에 따라 추가 인식된 선급비용과 계약부채간 차이금액은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당기 중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공시금액	조정	제 1115호 반영전 금액
영업수익	1,502,985	69	1,503,054
영업비용	(1,517,763)	166	(1,517,597)
영업이익	(14,778)	235	(14,543)
기타수익	15,416	-	15,416
기타비용	(2,314)	-	(2,314)
금융수익	92,039	-	92,039
금융비용	(80,588)	-	(80,58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775	235	10,010
법인세비용	668	-	668
당기순이익	9,107	235	9,342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

할 수 있는 일부 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규정합니다.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를 대체합니다.
다음 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의 적용에 따른 기타자본, 이익잉여금의 기초 잔액의 세후 영향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최초적용일 적용효과 (2018년 1월 1일)
[기타자본]	
금융자산 분류 변경에 따른 자본재분류	(2,810)
법인세효과	-
최초적용일(2018년 1월 1일) 영향	(2,810)
[이익잉여금]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536)
금융자산 분류 변경에 따른 자본재분류	2,810
법인세효과	-
최초적용일(2018년 1월 1일) 영향	2,274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의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성격과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는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의 기존 요건을 대부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금융자산의 기존 분류를 삭제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의 적용은 금융부채와 파생금융상품(위험회피 수단으로 사용되는 파생상품을 포함)과 관련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에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의 금융자산 분류와 측정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에 의하면, 최초 적용시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

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범주로 분류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이 관리되는 방식인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주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인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되지 않고, 복합금융상품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이자와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채무상품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이자와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일에 연결실체는 그 투자지분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금융상품 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되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이 아닌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이 아니라면 최초에 공정가치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다음 회계정책은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에 적용합니다.

금융자산의 분류	후속 측정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손실((나)참조)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절대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나) 금융자산의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을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새로운 손상모형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계약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에 적용되지만, 지분상품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에서 신용손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 보다 조기 인식될 것입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매출채권, 현금및현금성자산과 회사채로 구성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에서 손실충당금은 다음 두 가지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내에 발생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계약자산과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경우, 연결실체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신용손실이 예상되는 기대존속기간에 근거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합니다. 연결실체는 차입자 특유의 미래 예상 요인과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한 과거 신용손실 경험을 근거로 충당금설정률표를 설계합니다.
기타채무상품(예, 대여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등)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합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 기간말 이후 12개월 이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연결실체의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 중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금의 경우 신용위험이 낮은 투자로 간주됩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자산과 매출채권 및 미수금을 제외한 대여금, 리스채권, 국공채 등의 기타채무증권이 최초 취득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기준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연결실체는 계약상 지급이만기일 이후 30일 이상 연체되는 경우에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차입자의 재무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닌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과거의 입증자료가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와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된 금융자산 간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나, 계약상 지급이 6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상 지급이 만기일 이후 90일이 경과된 경우에 금융자산을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 연결실체는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연결실체가 계약상의 원금 전액을 수취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내는 경우 금융자산을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적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의 요구사항은 연결실체의 채무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증가시켰으며, 충당금의 증가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조

정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의 손상모형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일반적으로 증가하고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실체는 2018년 1월 1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의 손상요구사항을 적용하면 536백만원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손실충당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미적용 제・개정 기준서
제정・공표되었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의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하게 됩니다. 동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회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는 리스이용자가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하나의 회계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인식해야 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경우 리스 인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회계처리와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

라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하는 방법(완전 소급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법(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의 누적효과가 최초적용일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되고,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8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중에 있으며, 결산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기초에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가 각각 4,048백만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재무영향평가는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리스제공자로서 현재의 리스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더라도 유의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4.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기술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영업부문

연결회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석 6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3개의 보고부문이 있으며, 각 부문은 연결회사의 전략적 영업단위들입니다. 전략적 영업단위들은 서로 다른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하며 각 영업단위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전략이 다르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

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배분되지 않은 항목은 주로 공통자산, 공통비용 및 법인세부채입니다.

(2) 연결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회사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연결회사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 특수목적기업

연결회사는 거래 및 투자를 목적으로 다수의 특수목적기업을 설립하였으나, 이러한 기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수목적기업의 활동, 연결회사의 지배력 획득을 위한 의사결정능력,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 대한 효익을 획득할 권리와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4) 내부거래제거

연결회사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해야 하는 자산손상의 징후일 경우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1)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연결회사가 이전하는 자산, 연결회사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연결회사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합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사업결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발생시킨 취득관련원가에는 자문, 법률, 회계, 가치평가 및 그 밖의 전문가 또는 컨설팅관련 중개수수료, 내부의 취득부서를 유지하기 위한 원가를 포함한 일반관리원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을 등록하고 발행하는 원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연결회사는 취득일 현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및 단계적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가 취득하는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측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는 초과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지배지분의 추가취득은 주주간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그 결과 관련 영업권 등은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회사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공동기업은 연결회사가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나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와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회사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중단영업

연결회사는 별도의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거나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을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비교 표시되는 기간의 기초부터 영업이 중단된 것처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단, 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8)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물은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리스자산은 연결회사가 리스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구 분	추정 내용연수
건 물	10~50년	기계장치	5~20년
구 축 물	8~40년	차량운반구	4~10년
선 박	25년	공기구비품 및 기타	2~15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매 회계연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영업권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으며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의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기타의무형자산	3~20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및 매각예정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

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및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 리스

연결회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금융리스

연결회사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누어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원

가는 부채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보고기간동안 배분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연결회사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금융리스자산에 대해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운용리스
운용리스하의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인센티브는 총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약정이 리스이거나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약정의 실질에 근거하여 특정 자산을 사용해야만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약정에 따라 그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약정 개시일이나 약정의 재검토 시점에 약정에서 요구하는 지급액과 기타 대가를 상대적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리스 부분과 기타 요소 부분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실무적으로 신뢰성 있게 지급액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의 대상으로 파악된 약정대상 자산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으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대가가 지급되면 부채는 감소하고, 부채에 대한 내재금융원가는 구매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비파생금융부채
연결회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3)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자가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이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되는 계약상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 금액과 최초 인식한 금액에서 수익인식기준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5) 복합금융상품

연결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계약상 내용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항목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에 의해 발행된 복합금융상품은 상품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발행할 주식수는 공정가치에 따라 변동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부채요소는 최초 인식시에는 신주인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소멸 또는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최초 인식시의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상합니다.

(16)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해고급여

연결회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합니다. 해고급여의 지급일이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8) 외화

1) 외화거래

연결회사를 구성하는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

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회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19)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지배기업 또는 연결회사 내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수익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며, 거래와 관련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 및 반품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제품과 용역이 하나의 계약을 통해 판매될 경우 분리된 단위로 간주되는 각각의 제품과 용역은 분리하여 인식하며, 수취한 대가는 각 단위의 공정가치에 따라 배분하고 있습니다.

2) 용역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은 매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행률은 작업수행 정도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3) 수수료

연결회사가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으로서 거래하는 경우 수수료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임대수익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충당부채의 상각액,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

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회사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연결납세

연결회사는 연결모법인인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이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이하 "연결자법인")을 연결집단으로 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연결집단의 미래 과세소득을 각각 감안하여 일시적차이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액은 법인세비용(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이 연결모법인으로서 연결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 주체가 됨에 따라 연결납세기준에 의한 미지급법인세 총액을 지배기업의 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23) 주당손익

연결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을 지배기업주주지분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차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18년도 결산실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별도 재무제표

①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43(당)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42(전)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STX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3(당) 기	제 42(당) 기
자 산		
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8,077	74,336
단기금융자산	15,663	34,042
파생상품자산	5,807	2,630
매출채권	96,918	115,632
재고자산	89,120	103,343
선급금	43,289	10,537
기타채권	27,847	8,558
단기비금융자산	1,121	813
유동자산 계	297,842	349,891
Ⅱ. 비유동자산		
장기금융자산	8,502	21,552
종속기업투자주식	66,591	62,337
관계기업투자주식	1,089	-
장기매출채권	5,732	6,485
기타채권	36,362	48,318

과 목	제 43(당) 기	제 42(당) 기
유형자산	28,464	29,631
무형자산	2,176	2,179
비유동자산 계	148,916	170,502
자 산 총 계	446,758	520,393
부 채		
Ⅰ. 유동부채		
매입채무	57,955	113,876
선수금	-	16,157
계약부채	24,123	-
단기차입금	259,918	204,108
유동성장기부채	2,954	75,881
단기금융부채	16,054	28,762
파생상품부채	813	15,026
단기비금융부채	118	173
유동부채 계	361,935	453,983
Ⅱ.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22,595	19,343
장기금융부채	15	2,058
장기비금융부채	-	299
이연법인세부채	-	-
비유동부채 계	22,610	21,700
부 채 총 계	384,545	475,683
자 본		
Ⅰ. 자본금	49,317	47,834
Ⅱ. 자본잉여금	309,749	430,562
Ⅲ. 자기주식	(248)	(248)
Ⅳ. 기타자본	(303,312)	(312,625)
Ⅴ. 결손금	6,707	(120,813)

과 목	제 43(당) 기	제 42(당) 기
자 본 총 계	62,213	44,71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446,758	520,393

②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3(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2(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STX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3(당) 기	제 42(전) 기
Ⅰ. 당기순손익		
영업수익	1,329,890	1,595,494
영업비용	(1,336,792)	(1,565,324)
매출원가	(1,319,737)	(1,541,890)
판매비	(8,159)	(12,639)
관리비	(8,896)	(10,795)
영업이익(손실)	(6,902)	30,170
기타수익	10,476	5,489
기타비용	(2,016)	(2,249)
금융수익	74,118	447,098
금융비용	(70,653)	(144,32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5,023	336,179
법인세비용(수익)	-	-
당기순이익(손실)	5,023	336,179
Ⅱ. 기타포괄손익	-	-
후속기간에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	(671)	173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2,915
- 지분법자본변동	3,736	(565)
기타포괄손익 계	3,065	2,523
Ⅲ. 총포괄손익	8,088	338,702

과 목	제 43(당) 기	제 42(전) 기
IV. 주당손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단위: 원)	260	21,097

③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43(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2(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STX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결손금)	자본총계
2017년 1월 1일(제 42(전) 기 기초)	118,472	11,147	(88)	(1,249)	(457,165)	(328,883)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	-	-	-	-	336,179	336,179
기타포괄손익	-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2,915	-	2,915
- 지분법자본변동	-	-	-	(565)	-	(565)
- 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	-	-	-	-	173	173
기타포괄손익 계	-	-	-	2,350	173	2,523
총포괄손익 계	-	-	-	2,350	336,352	338,702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 유상증자(출자전환)	360,007	(11,147)	-	(313,726)	-	35,134
- 주식병합 및 자기주식소각	(430,645)	430,562	79	-	-	(4)
- 자기주식의 취득	-	-	(239)	-	-	(239)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계	(70,638)	419,415	(160)	(313,726)	-	34,891
2017년 12월 31일(제 42(전) 기 기말)	47,834	430,562	(248)	(312,625)	(120,813)	44,710
K-IFRS 1109 최초적용에 따른 조정	-	-	-	(2,794)	2,359	(435)
K-IFRS 1115 최초적용에 따른 조정	-	-	-	-	(5)	(5)
2018년 1월 1일 (제 43(당) 기 기초)	47,834	430,562	(248)	(315,419)	(118,459)	44,270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5,024	5,024
기타포괄손익	-	-	-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3,753	-	3,753
- 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	-	-	-	-	(160)	(160)
- 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 (회계정책의 변경효과)	-	-	-	-	(511)	(511)
- 지분법자본변동 (회계정책의 변경효과)	-	-	-	(16)	-	(16)
기타포괄손익 계	-	-	-	3,736	(671)	3,065
총포괄손익 계	-	-	-	3,736	4,353	8,089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 유상증자 (출자전환 현금변제포함)	1,484	-	-	8,368	-	9,852

과 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결손금)	자본총계
- 기타	-	-	-	3	-	3
- 결손금의 보전	-	(120,813)	-	-	120,813	-
2018년 12월 31일 (제 43(당) 기 기말)	49,318	309,749	(248)	(303,312)	6,707	62,313

④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43(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2(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STX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3(당) 기	제 42(전) 기
Ⅰ. 영업활동현금흐름	(51,274)	93,844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주석29)	(51,739)	92,731
이자의 수취	328	704
배당금의 수취	2	2
법인세의 환급	135	407
Ⅱ. 투자활동현금흐름	22,828	45,598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45,239	55,692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8,613	28,060
기타채권의 감소	89,461	4,705
유형자산의 처분	-	23
무형자산의 처분	-	131
단기금융자산의 증가	(26,119)	(36,893)
장기금융자산의 증가	(1,084)	(14)
기타채권의 증가	(91,416)	(6,038)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723)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1,133)	-
유형자산의 취득	(10)	(68)
Ⅲ. 재무활동현금흐름	(27,925)	(83,177)
주식발행비용	(143)	-
유상증자	10,000	-
주식발행비용환입	8	-

과 목	제 43(당) 기	제 42(전) 기
단기차입금의 순차입	57,758	(26,231)
금융보증계약부채의 상환	(6,009)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78,191)	(38,965)
장기차입금의 상환	-	(458)
자기주식의 취득	-	(239)
이자의 지급	(11,348)	(15,406)
기타	-	(1,878)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 +II+III)	(56,372)	56,265
V.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74,336	19,366
VI.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13	(1,295)
VII.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8,077	74,336

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제 43(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2(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STX (단위 : 백만원)

구분	제43(당)기		제42(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6,707		(120,813)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457,165)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671)		173	
재분류조정(지분법자본변동)	-		-	
K-IFRS 1109,1115 최초적용에 따른 조정(세후)	2,354			
당기순이익(손실)	5,024		336,179	
II. 이익잉여금처분액(결손금처리액)		-		120,813
자본잉여금 이입액			120,813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707		-

⑥ 주석

제 43(당)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42(전)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STX(이하 "당사")는 1976년 12월 24일에 설립되었으며, 종합상사업 및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90년 9월 12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고, 2014년 1월 17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18년 8월 21일 부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보유주식 공동매각 거래가 종결됨으로 인해 당사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자율협약)가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최대주주가 에이에프씨머큐리(유)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유안타증권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30일에 10,000백만원(593,472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백만원)

주주명	보통주		
	주식수	지분율	자본금
에이에프씨머큐리(유)	16,508,051	83.68%	41,270
기 타	3,218,851	16.32%	8,047
합 계	19,726,902	100%	49,317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에 근거한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토지(유형자산, 투자부동산)와 건물(유형자산)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금융리스에 관한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법인세,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에 관한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금융상품, 유형자산에 관한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

익)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금융상품)를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당사의 분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및 제1119호)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는 수익을 언제, 얼마나 인식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체계입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8호(수익), 제 1011호(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031호(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 2113호(고객충성제도), 제 2115호(부동산건설약정), 제 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를 대체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2018년 1월 1일)에 인식하도록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며, 최초적용일(2018년 1월 1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이 기준서를 소급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월 1일의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도입에 따른 세후 전환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1월 1일 적용효과
이익잉여금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운송용역	(5)
법인세 효과	-
2018년 1월 1일 적용 효과	(5)

2018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요약재무상태표와 동일자로 종료되는 요약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적용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동일자로 종료되는 요약현금흐름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요약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공시금액	조정	제 1115호 반영 전 금액
자산			
유동자산	297,842	(179)	297,663
비유동자산	148,916	-	148,916
자산총계	446,758	(179)	446,579
부채			
유동부채	361,935	(175)	361,760
비유동부채	22,610	-	22,610
부채총계	384,545	(175)	384,370
자본			
자본총계	62,213	(4)	62,209
부채와 자본 총계	446,758	(179)	446,579

(가) 무역거래시 운송용역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함에 따른 수익의 인식

이전 기준서에서는 재화에 대한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의 이전시 일시에 수익을 인식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에서는 운송용역을 구분하여 식별하고,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한 후, 용역의 진행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로 인해 미완료된 운송용역에 대해 기 지급한 운송비를 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미이행된 운송용역에 대해 고객에게 기 청구된 금액을 계약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나) 무역거래시 운송용역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함에 따른 비용의 인식

단일계약에 포함된 운송용역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함에 따라 수익의 인식시점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동 운송용역의 수행을 위해 지급한 운송비를 기존 기준서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인식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에서는 관련 직접비용을 매출원가로 분류하며, 비용인식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분기현금흐름표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의 적용으로 영업현금흐름 구성항목 중 자산 및 부채의 증감내역상 계정과목의 변경이 발생하나, 영업활동으로 인한 총 현금흐름은 동일합니다.

한편, 당기초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적용에 따라 추가 인식된 선급비용과 계약부

채간 차이금액은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당기 중 요약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공시금액	조정	제 1115호 반영전 금액
영업수익	1,329,890	(111)	1,329,779
영업비용	(1,336,792)	101	(1,336,691)
영업이익(손실)	(6,902)	(10)	(6,912)
기타수익	10,476	-	10,476
기타비용	(2,016)	-	(2,016)
금융수익	74,118	-	74,118
금융비용	(70,653)	-	(70,65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5,023	(10)	5,013
법인세비용	-	-	-
분기순이익(손실)	5,023	(10)	5,013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는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일부 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규정합니다.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를 대체합니다.

다음 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의 적용에 따른 기타자본, 이익잉여금의 기초 잔액의 세후 영향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최초적용일 (2018년 1월 1일) 적용효과
[기타자본]	
금융자산 분류 변경에 따른 자본재분류	(2,794)
법인세효과	-
최초적용일(2018년 1월 1일) 영향	(2,794)
[이익잉여금]	

(단위: 백만원)	
구 분	최초적용일 (2018년 1월 1일) 적용효과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435)
금융자산 분류 변경에 따른 자본재분류	2,794
법인세효과	-
최초적용일(2018년 1월 1일) 영향	2,359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의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성격과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는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의 기존 요건을 대부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기존 분류를 삭제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의 적용은 금융부채와 파생금융상품(위험회피 수단으로 사용되는 파생상품을 포함)과 관련된 당사의 회계정책에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의 금융자산 분류와 측정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에 의하면, 최초 적용시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범주로 분류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이 관리되는 방식인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주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인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되지 않고, 복합금융상품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이자와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채무상품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이자와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일에 당사는 그 투자지분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금융상품 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되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이 아닌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이 아니라면 최초에 공정가치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다음 회계정책은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에 적용합니다.

금융자산의 분류	후속 측정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

금융자산의 분류	후속 측정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손실((나)참조)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절대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나) 금융자산의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을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새로운 손상모형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계약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에 적용되지만, 지분상품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에서 신용손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 보다 조기 인식될 것입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매출채권, 현금및현금성자산과 회사채로 구성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에서 손실충당금은 다음 두 가지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내에 발생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계약자산과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경우, 당사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신용손실이 예상되는 기대존속기간에 근거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합니다. 당사는 차입자 특유의 미래 예상 요인과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한 과거 신용손실 경험을 근거로 충당금설정률표를 설계합니다.
기타채무상품(예, 대여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등)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합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 기간말 이후 12개월 이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당사의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 중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금의 경우 신용위험이 낮은 투자로 간주됩니다. 당사는 계약자산과 매출채권 및 미수금을 제외한 대여금, 리스채권, 국공채 등의 기타채무증권이 최초 취득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기준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당사는 계약상 지급이 만기일 이후 30일 이상 연체되는 경우에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차입자의 재무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닌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은경우 또는 과거의 입증자료가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와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된 금융자산 간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나, 계약상 지급이 6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신용위험의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는 계약상 지급이 만기일 이후 90일이 경과된 경우에 금융자산을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 당사는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당사가 계약상의 원금 전액을 수취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내는 경우 금융자산을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적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의 요구사항은 당사의 채무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증가시켰으며, 충당금의 증가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의 손상모형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일반적으로 증가하고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2018년 1월 1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의 손상요구사항을 적용하면 435백만원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손실충당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미적용 제・개정 기준서

제정・공표되었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분기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의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하게 됩니다. 동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회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는 리스이용자가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하나의 회계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인식해야 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경우 리스 인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회계처리와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하는 방법(완전 소급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법(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의 누적효과가 최초적용일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되고,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8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중에 있으며, 결산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기초에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가 각각 231백만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재무영향평가는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리스제공자로서 현재의 리스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더라도 유의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차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18년도 결산실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장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36 생략 37. 위 각호에 관련된 투자 및 부대사업	제1장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37.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38. 해외건설업 39. 위 각호에 관련된 투자 및 부대사업	사업목적 추가에 따른 추가사항 반영
제2장 제8조 【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	제2장 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반영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5조의2 【사채의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5조의2 【사채의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제5장 제42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제42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외감법 개정에 따른 필요사항 반영
(신설)	부칙 (2019.03.28)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 제8조, 제15조의2 제3항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반영

□ 감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근수	1960.07.28	없음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현재)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근수	-	前 기업은행 지점장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3 (1)	4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0억원	10억원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억원	1억원

※ 참고사항

당사는 금번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국내 및 해외 종속회사가 포함된 연결결산 일정준수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상장회사협의회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참여 여부 : 미참여
- 상장회사협의회 발표한 당해년도 주주총회 집중일 : 3/22, 3/27, 3/28, 3/29